

# 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임승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학도서관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Library E-Book Service

Seungjae Lim

Gangdong Kyunghee University Hospital Medical Library, Seoul, Korea

Although e-books have already become an important service area for libraries in terms of collection and budget,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erms of introduction methods and services. In this study, as the non-face-to-face era due to Corona 19 is rapidly approaching and the digital environment is advanced, the size of the e-books in the library is looked at with statistics,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e-book market is identified to find ways to improve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book budget of domestic public libraries was insufficient, and the inconvenience of e-book access still exists, so it can be said that improvement is required. [J Korean Med Libr Assoc 2021;48(1,2):44-51]

**Keywords:** E-Book, Public Library, E-book Publication, E-book Platform, Non-Face-to-Face, University Library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회나 경제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가 저장 및 배포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기존의 인쇄 매체를 통한 정보의 가공과 유통은 뉴미디어의 대두, 디지털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정보기록 매체의 급속한 발전, 전자출판과 같은 정보생산과 정보 유통 방법의 혁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변화는 생산 및 유통 단가 절

감, 정보 접근 및 획득의 편리성 등의 장점과 함께 전자출판물의 인식, 보존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점들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도서관과 그 서비스의 접근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도서관은 이제 전통적인 서비스를 디지털 도서관 환경에서의 서비스로 변화시키며 내·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 매체의 중심으로서의 과업을 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출판의 현황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자출판 산업과 도서관의 접근방식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Received October 15, 2021, Revised November 19, 2021, Accepted December 15, 2021

Corresponding author: Seungjae Lim

Gangdong Kyunghee University Hospital Medical Library, 892 Dongnam-ro, Gangdong-gu, Seoul 05278, Korea

Tel: 82-2-440-6849, Fax: 82-2-440-6852, E-mail: dlatmdwo4@khmc.or.kr

Copyright © 2021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 국내공공도서관 전자서비스 현황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1]에 등록된 데이터를 보면 2020년 기준 공공도서관은 1,172개 공공도서관이 있고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은 864개로 전체대비 약 73.7% 정도이며,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자책은 총 12,729,347권이다. 공공도서관 소장 종이책 118,544,873 권의 1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4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도서관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3.9%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약 1%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공공도서관은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자책의 증가 폭은 매년 약 0.1~1% 정도 증가하였다. 표 1을 봤을 때 전자책 서비스 도서관 비율은 감소하였고 전자책 장서 비율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제 공공도서관은 일반 이용자의 범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종이책 대출 통계는 매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집계되고 있지만, 아직 전자 출판물 대출 통계는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이용률이 종이책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대출 통계를 집계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나마 경기도사이버도서관누리집(www.library.kr)을 통해 국가도서관 통계와 별도로 자체 조사한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관련 상세한 통계 데이터를

표 1.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운영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도서관 수 (개관)	749	830	847	864
(전체대비 비율)	(71.8%)	(75.7%)	(74.6%)	(73.7%)
장서 수 (백권)	83,336	97,467	103,134	127,293
(전자책 비율)	(7.9%)	(8.8%)	(8.9%)	(10.7%)

표 2. 경기도 공공도서관 전자책 이용 통계

연도	도서관 수	전체 대출량	전자책 대출량 (일평균)	비율
2020년	288개관	29,710,000	1,186,507 (3,519)	3.9%
2019년	278개관	48,900,000	765,070 (2,096)	1.5%
2018년	266개관	44,610,000	500,983 (1,372)	1.1%
2017년	251개관	43,666,000	382,364 (1,047)	0.8%

참조할 수 있다. 비록 경기도권에 한정하고 있지만, 전체 공공도서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 특성상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전반적인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이용 현황을 가늠하는 데 무리가 없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연간 약 38만 권이 대출된 이후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2020년 크게 증가하여 약 118만 권까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본다면 2017년 대비 약 80만 권이 증가하여 4년 사이에 약 3배가 증가하였다. 전체 도서관 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0.8% 수준에서 상승세로 2020년 기준 3.9%까지 3.1% 상승치를 보여주었다.

## 국내대학도서관 전자서비스 현황

‘2020년 대학도서관 통계 분석 및 교육 연구 분석[2]’ 발표에서 대출 책수의 감소 원인으로 학생들이 인쇄책을 대출하던 방식에서 전자책 활용 방식으로 정보 이용 행태가 변화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고, 강의시 전자자료, 동영상 등의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것 또한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KERIS 통계 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근 5년간 전체 자료구입비 중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16년 112,000원에서 20년 105,250원으로 큰 변동은 없었으나, ‘대학 평균 전자자료 구입비’가 3억 8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약 15% 증가하였고, 대학의 20년도 전자자료 구입비는 전체 자료구입비의 약 69% (2016년 약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하여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료구입비, 인건비, 시설 및 환경 개선 투자비, 운영비 등 대학도서관 예산에 지대한

표 3. 2020년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예산 분석(2016년 대비)

구분	대학수	자료구입비 (단위: 백만원)	비율 (단위: %)
4년제/대학원대학	256	237,186	71.7
전문대학	137	11,560	23.2
합계	393 (397)	248,747 (152,573)	69.4 (67.2)

영향을 받으며 재정 악화로 인한 투자 동결 또는 축소를 하고 있다. 발전을 위해 대학도서관은 정보기술의 고도화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정보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매체 도입 및 이용의 다변화로 인해 대학도서관은 “장서의 소장”에서 “정보 접근”을 지원하는 역할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 국내 E-Book 현황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특징짓는 키워드 중 하나는 ‘구독경제’이다. 구독경제란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일컫는다. 구독경제는 넷플릭스 등 OTT (Over The Top: 웹 기반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공 이후 여러 분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3].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도서 구독 서비스 역시 매년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국민 독서실태조사[4]’에 따르면 전자책 독서율은 2015년 10.2% (1년에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에서 2017년 14.1%, 2019년 16.5%로 늘었다(그림 1).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점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디지털 중심의 구독 서비스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책 시장이 국내 출판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지는 않았으나 전자출판의 역동성은 출판물의 매력도 개선과 안정적인 출판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며 잠재적인 성장 기반이라는 점에서 향후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예측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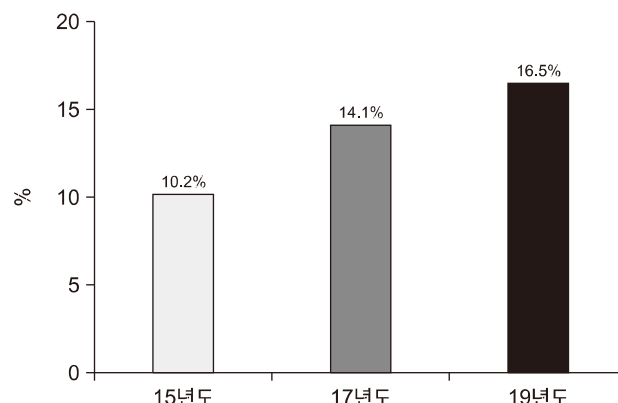


그림 1. 연간 성인 전자책 독서율(2년 주기).

## 1. 시장을 이끄는 플랫폼

현재 한국에서 도서 구독 서비스는 교보문고샘(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YES24 북클럽 4개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선도기업은 교보문고 샘(Sam)이다. 2013년 서비스를 개시한 교보는 보유 도서 15만 권에 제휴출판사만 4,000여 곳에 이른다. 교보는 판타지와 무협 등 장르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다. 또 스마트 영어 동화 시리즈나 어린이 독서에 최적화된 앱을 별도로 제공해 교육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서비스에 들어간 밀리의 서재의 경우 책을 ‘쉽게’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존에 책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가령 책 핵심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요약해주는 ‘챗북’이나 눈으로 책 페이지 넘기는 ‘시선 추적’ 기능, AI 보이스를 활용한 ‘내가 만든 오디오북’ 서비스 등을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책을 읽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독서가 힘든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서비스이다. 전자책 정기구독 서비스에 추가 요금을 지불 시 오리지널 종이책도 이용할 수 있다. YES24 북클럽은 YES24에서 제공하는 전자도서 회원제 서비스로 2018년에 시작했다. 스탠더드, 프리미엄, 북클럽FL99 등 3가지 형태의 회원권을 운영하고 있다. 북클럽 FL99는 모바일 음악 무제한 듣기 이용이 가능하다.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리디셀렉트는 종이책을 PDF화한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도서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아티클’로 불리는 전문가 칼럼까지 볼 수 있다는 특색이 있다.

리디셀렉트의 경우 독자들의 ‘독서 실패’를 줄이기 위해 베스트 셀러 등 엄선된 도서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

## 국외 E-Book 현황

해외 전자도서 시장도 전환기이다. COVID-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수단을 통해 오락과 교육을 책으로 눈을 돌리면서 전자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전염병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진화를 가속화함에 따라 전자책에 대한 투자 관심이 증가하였고 출판사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집에 갇히면서 오락, 서점 폐쇄로 인해 eBook 판매량이 급증하고, 도서관 전자책 대출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전 세계 50,000개 도서관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OverDrive는 전염병 이후 많은 도서관 오프라인 지점이 문을 닫고 전자책 사용이 45% 증가했다고 한다[5].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전자책 시장의 불씨를 붙인 것이다.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전자책 시장은 2020년에 152억 8,000만 달러로 평가되었고 2026년까지 186억 8,00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에서 2026년 동안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6] 연평균 성장률을 3.62% 예상하고 있다(그림 2). 전자책 독서 인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전자책 전용 단말기 보유자가 증가한 이유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7]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 대수는 47억대로 세계 인구의 약 78%가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자책 독자는 스마트폰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의 보유 여부는 전자책 독서 지표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 1. 시장을 이끄는 플랫폼

현재 세계 전자책 시장의 대표주자는 2014년 출범한 아마존의 ‘킨들 언리미티드(Kindle unlimited, 이하 KU)’이다. 월정액 9.99달러(한화 약 1만400원)에 전자책 100만여 권과 오디오북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가출판 서비스인 ‘Kindle Direct Publishing Select’ 서비스(이하 KDP)를 토대로 전자책 출판시장에 더욱 영향력을 높이는 중이다. KDP는 출판물의 저작권자인 저자(출판사)들에게 높은 로열티(약 70%)를 주는 대신 아마존 독점 유통 계약을 맺는다. 미국의 출판업계는 KU의 성장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아셰트, 맥밀런, 펭귄 랜덤하우스, 하퍼콜린스, 사이먼앤슈스터 등 미국의 주요 출판사들은 아마존과 전자책 가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마존은 초기에 적자를 보더라도 시장을 키우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고, 전자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아마존으로 집중되길 원했다. 아마존이 전자책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역마진 전략 외에도 책을 읽는 독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아마존에게 마케팅과 기술의 연결을 수월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아마존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온라인 서점이 아닌 ‘플랫폼’이라고 정의하며 콘텐츠(C)-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킨들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현재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 모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서브스크립션은 정기구독 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이스터(Oyster), 스크리브드(Scribd)를 선두로 아마존의 킨들 언리미티드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출시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월 10달러 정도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책 시장이 커질수록 대다수의 출판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자기 잠식효과)이다. 서브스크립션 모델은 월별 저렴한 가격에 무제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단권 판매에 비해 실질적인 이익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초기에 출판사에 많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책 사용이 가능한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의 확산과 콘텐츠 소비자들의 급증으로 인해 출판

#### E-book market

Revenue in USD billion, global, 2019~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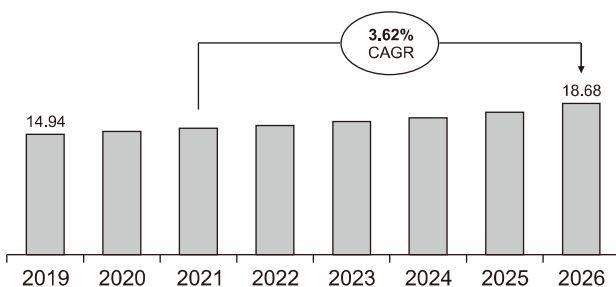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전자책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Mordor Intelligence).

사들이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돌파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 국내 출판계에 요구되는 사항

전자책 활성화에 대한 실행으로 해외기업들은 분주하다. 아마존의 시장 독식을 우려한 애플과 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도 전자책 구독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미 점유율 또한 높아진 상태이다. COVID-19으로 인한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가 출판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 출판의 80% 이상이 전자책 출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구독 서비스를 바라보는 국내출판 업계의 생각은 일반 소비자와 달리 복잡적이다. 독자들이 책을 쉽게 접하고, 책을 판매하는 창구 자체가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출판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구독 서비스의 경우 많은 작가가 내 책이 월 얼마에 펀드로 팔리는 ‘떨어 상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책 시장 활성화와 수익 확보를 위해 국내 출판계에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 종이책과 전자책의 동시 출간율을 높이는 것이 중점이다. 종이책의 디지털화가 기본이지만, 최초의 콘텐츠 기획부터 간단명료하고 저렴한 가격의 디지털 싱글 출판도 주목해볼 사항이다. 출판사 관점에서 메타데이터(metadata) 관리는 디지털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책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속성 관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책의 발견 가능성을 높여주면 된다. 책의 디지털화는 대세가 될 것이고 독자들의 독서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세대들이 성장하고 시대의 중심이 되면 전자책 독서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만큼 발견하지 못한 전자책의 새로운 가치와

장점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전자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무엇보다 출판계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종이책보다 더욱 독자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출판 외의 콘텐츠 시장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콘텐츠 기획과 생산의 주체가 되는 출판사의 전략적 방향과 실행은 전자책 생태계를 움직이는 핵심이다. 이제 전자책 시장이 성장세에 있는 미국과 유럽지역 및 일본, 중국 등 출판계의 동향에 더욱 주목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다.

## 국내도서관 전자책 활성화 방안

국내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활성화의 장애 요인 또는 문제점으로 도서관 구매 예산 및 전자책 이용환경에 대한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첫 번째로, 전자책 구매의 예산 부족이다. 『2017년 전국 공공도서관 정보화 현황조사』 [8]에서 설문에 응답한 258개 공공도서관에서 구입 혹은 구독 중인 전자자료(e-book, e-journal, 기타)의 연간 예산 통계조사에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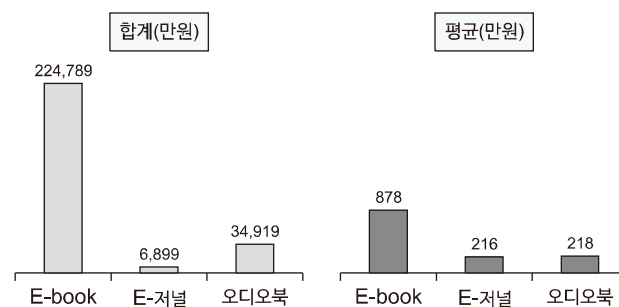


그림 3. 2017년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예산 실태.

표 4. 2020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액(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관당 총 자료구입비	76,769	84,659	86,935	92,053	91,015
1관당 도서구입비	60,523	68,183	69,511	74,251	72,108
1관당 비도서 구입비	3,699	3,722	3,901	3,745	3,642
1관당 전자자료 구입비	4,890	5,060	5,960	6,430	6,805
1관당 연속간행물 구입비	7,657	7,695	7,563	7,627	8,463

자책(e-book)’은 22억 4천351만 원, ‘e-저널’은 2억 2천 364만 원, ‘오디오북’은 6억 1천772만 원으로 응답했다. 응답한 258개 도서관을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 1관당 약 878만 원 정도이다. 『2020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 [9]에 따르면, 2020년 공공도서관의 1관당 전자 자료 구입 예산은 약 68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그림 3과 표 4로 따져보았을 때 2020년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예산은 1관당 약 190만 원 정도 부족한 셈이다.

반면, 대학도서관은 KERIS 연구 발표내용[10] 중 최근 5년간 전자자료 유형별 자료구입비 비율을 보면, 전자저널 구입비율은 증가하였고, 기타 전자자료 구입비율은 감소하였다(그림 4, 표 5). 전자자료의 가격상승이 이렇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시작한 전자자료, 특히 전자저널은 구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대학도서관들의 고민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다. 관련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것처럼, 학술저널은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료가 아무리 인상되어도 소비자의 이용률은 감소하지 않는다. 이러한 독과점 상태에서 학술저널 공급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학술저널이 전자 형태로 생산되어 유통될 경우 공급자가 갖는 힘은 더욱 커진다는데 있다. 전자자료에는 이렇듯 소비자를 종속적으로 만드는 특성이 내재하기 때문에, 일단 구독을 시작한 전자자료의 경우 구독가격 및 조건을 구매자인 대학도서관에서는 거절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 전자책 이용 환경 문제이다. 국내에서는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한국출판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자가 전자책 콘텐츠 유통 사업에 진출했다. 특히, 한국이퍼브, 리디북스 등에서 다수의 전자책 단말기(e-잉크, 태블릿)도 출시해 왔다. 국내 전자책 시장은 EPUB [11] 표준을 기반으로 전자책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책 유통 서비스 업체별로 상이한 DRM (디지털저작권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책의 유통 및 이용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전자책 부여와 DRM 솔루션은 국내 전자책 산업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이슈였다. 하지만 아직도 유통사마다 자체적인 DRM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유통사의 전자책 부여에서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도서관은 현재 표준 공용 DRM을 적용하여 유통사가 다른 영구 접속형과 구독형 전자책을 동시에 대출·반납하고 ‘내서재’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울도서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책은 영구 접속형 전자책 약 5천 종, 구독형 전자책 약 4천 종, 국외 전자책 약 60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구독형 전자책은 매년 도서목록을 갱신하여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임대형 전자책 서비스로 메이저 출판사의 신간, 베스트셀러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전자 출판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보호와 함께 DRM 기술의 호환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표준 공용 DRM을 대표적인 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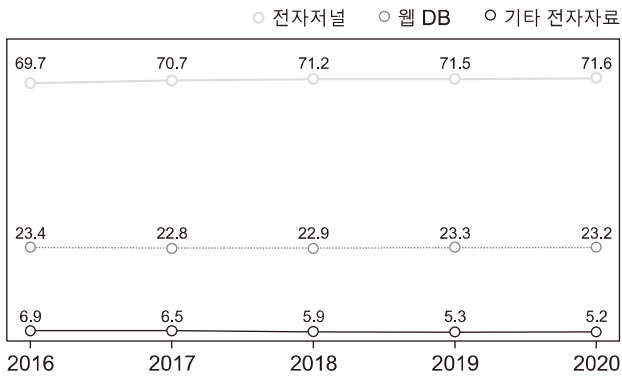


그림 4. 2020년 대학도서관 최근 5년간 전자자료 유형별 자료구입비 비율.

표 5. 2020년 대학도서관 전자자료의 유형별 자료구입비 비율(단위: 백만원, %)

구분	대학수	전자저널		웹 DB		기타 전자자료		합계	
		금액(원)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4년제/대학원대학	256	122,686	72.2	39,270	23.1	8,021	4.7	169,976	100
전문대학	137	905	33.8	819	30.6	953	35.6	2,678	100
합계	393	123,591	71.6	40,089	23.2	8,947	5.2	172,654	100

도서관에 적용되면서 좋은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책 서비스의 현황과 국내외 전자책 플랫폼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학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는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과는 일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술도서를 중심으로 볼 때 제공 도서의 70% 이상을 전자도서로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내 의학 전문도서는 전자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출판된 전자도서를 구독하고 있다. 의학도서관 내에서도 임직원을 위한 일반 교양도서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지만 기관의 예산과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 사서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이용자를 위한 교양도서 서비스를 전자도서로 전환 또는 병행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12]. 앞서 소개된 국내 전자도서 서비스 플랫폼을 도입하여 제한된 예산과 공간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컨소시엄 형태의 의학 전문도서와 같이 일반도서를 오디오북 또는 전자로 제공하는 방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폭넓은 서비스 개발을 고려할 때 시도해볼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자관의 상황에 맞는 전자도서 및 오디오북 서비스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학도서관 내에서도 일반 이용자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전자책 서비스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해가고 있다. 다소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다른 곳과 차별화된 매우 유용한 장점이자 새로운 전자책 이용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다. 똑같이 독자와 전자책을 매개하는 온라인 서비스이긴 하지만 도서관은 인터넷 서점이나 상용 전자책 전문 업체와 비교할 때 무료라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도서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새로운 매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아울러 다양한 영역에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REFERENCES

1. Korea Publishing and Read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0 Yearly Survey」 [cited 2021 November 20] Available from : <http://kpa21.or.kr/kpa-business/%EC%B6%9C%ED%8C%90%EC%A0%95%EC%B1%85%EC%97%B0%EA%B5%AC/>
2.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20 Fatal Analysis and Education-Research Results Analysis」 [cited 2021 November 20] Available from : <https://www.keris.or.kr/main/main.do>
3. Song Seok-joo and Ahn Ji-seop, staff reporters. The rapid expansion of e-books is half-expected and half-worried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shing industry. reading newspaper. 2021 03. <https://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28>
4. Korea Publishing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2019 e-book reading status survey」 [cited 2021 November 30] Available from : <https://www.kpipa.or.kr/main/main.do>
5. David Burleigh. E-Book and Audiobook Usage Surges in Academic Libraries During pandemic. [cited 2021 November 30] Available from : <https://company.overdrive.com/2021/04/13/ebook-and-audiobook-usage-surges-in-academic-libraries-during-pandemic/>
6. GLOBAL E-BOOK MARKET - GROWTH, TRENDS, AND FORECAST [cited 2021 November 30] Available from :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e-book-market>
7. S. O'Dea. Global smartphone penetration rate as share of population from 2016 to 2020. Statista 2021 [cited 2021 November 30] Available from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03734/global-smartphone-penetration-per-capita-since-2005>
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7), 「2017 National Public Library Informatization Status Survey」 [cited 2021 December 3] Available from : <https://www.mcst.go.kr/kor/main.jsp>
9. Korea Publishing and Read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0 Publication Market Statistical Research Report」 [cited 2021 December 3] Available from : [http://member.kpa21.or.kr/kpa\\_bbs/](http://member.kpa21.or.kr/kpa_bbs/)
10. Korean Publishing Conten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2B Contracts for Electronic Publications in Public Libraries in 2020」 [cited 2021 December 3] Available from : <http://e-kpc.co.kr/>

11.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9 e-book, free library service from time and space) [cited 2021 December 3] Available from : <https://www.nl.go.kr/NL/contents/N10100000000.do>
12. Korea Medical Library Association 『Medical Books Librarian Libraries Meet E-Books』 2021;23(1)